

지방자치·종합

한국지방신문협회 강창희 국회의장 공동 인터뷰

“대화·타협... 국회 충돌 막겠다”

임동욱 서울취재부장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제현장을 하루 앞둔 16일 강창희 국회의장과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야의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물리적인 충돌을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과거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군(軍)내 사조직 하나회 출신의 강 의장은 역대 군사정권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하며 곤혹스러워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7일 64주년 제헌절을 맞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국회 개원이 안되면서 제헌절 행사를 국회에서 못 칠 수 있다는 걱정을 했다. 14대 국회 때, 무소속으로 당선됐는데 3개월이나 개원이 늦어 제헌절 행사를 열지 못했다.

국회가 정상화돼 단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올해 64주년인데, 64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어수선한 상태에서 제한국회가 열리고 제헌 의원들이 경험에 없음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현법을 만들었다는 데 경의를 느낀다.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 번영과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제헌 의원 192명의 덕분이다. 새삼 64주년 제헌절을 맞아 그분들의 제헌 정신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

-국회 개원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동의한다. 당초 6월 5일 개원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아 현

총일과 6·25 행사 등에도 차질을 빚었다. 의장, 부의장 선출하고 국회 개원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자동 개원 부분을 넣지 못했다. 제 임기 중이라도 국회법을 손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5·18 국립묘지를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개원 법적 강제에 동의

새누리 정두언 부결은 잘못

27일 5·18 국립묘지 방문 추진

▲지난 8년간 두 차례 낙선해 공적 신분이 아니어서 가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되어 참배하려고 하니 유희석 등의 반발 기류가 있어 상황을 보고 있다. 현지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참배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 오는 27일 여수엑스포를 참관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하에 자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해달라고 했으나, 할 수 밖에 없다. 박탈 여지가 있다면 박탈하고,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자격심사위원회를 열면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여야 대표들도 또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겠나.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 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번 불시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문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니, 여야도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자격심사에서 별 문제없이 가면 제명되지 않을 것이고, 강경 분위기가 형성되면 또 달라질 것이다.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답변하지 않겠다. 이 같은 질문은 (세종대왕에게) 이성경의 위화로 회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이 부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솔직히 새누리 의원들이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을 부결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서

로 조금 불편해도 개인적인 문제다. 공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을 부결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한다.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국회의 고질병이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다

▲올해 초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돼 현재지변 말고는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 일단 갈등의 기회는 줄었다. 국회 경협상 의원들 간의 몸싸움을 하게 하는 것은 하지하수(下之下手). 반대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한 식물 국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방법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적극성을 띠고 일할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야 싸우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끄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웃는 얼굴엔 침 못 뱉는다. 서로 얼굴을 맞대는 대면의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논란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하에 자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해달라고 했으나, 할 수 밖에 없다. 박탈 여지가 있다면 박탈하고,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자격심사위원회를 열면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여야 대표들도 또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겠나.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 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번 불시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문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니, 여야도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자격심사에서 별 문제없이 가면 제명되지 않을 것이고, 강경 분위기가 형성되면 또 달라질 것이다.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답변하지 않겠다. 이 같은 질문은 (세종대왕에게) 이성경의 위화로 회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이 부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솔직히 새누리 의원들이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을 부결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서

/tuim@kwangju.co.kr

/사진=매일신문 박희만 기자

스럽게 생각한다. 올해 64주년인데, 64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어수선한 상태에서 제한국회가 열리고 제헌 의원들이 경험에 없음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현법을 만들었다는 데 경의를 느낀다.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 번영과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제헌 의원 192명의 덕분이다. 새삼 64주년 제헌절을 맞아 그분들의 제헌 정신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

-국회 개원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동의한다. 당초 6월 5일 개원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아 현

총일과 6·25 행사 등에도 차질을 빚었다. 의장, 부의장 선출하고 국회 개원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자동 개원 부분을 넣지 못했다. 제 임기 중이라도 국회법을 손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5·18 국립묘지를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8년간 두 차례 낙선해 공적 신분이 아니어서 가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되어 참배하려고 하니 유희석 등의 반발 기류가 있어 상황을 보고 있다. 현지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참배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 오는 27일 여수엑스포를 참관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하에 자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해달라고 했으나, 할 수 밖에 없다. 박탈 여지가 있다면 박탈하고,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자격심사위원회를 열면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여야 대표들도 또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겠나.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 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번 불시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문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니, 여야도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자격심사에서 별 문제없이 가면 제명되지 않을 것이고, 강경 분위기가 형성되면 또 달라질 것이다.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답변하지 않겠다. 이 같은 질문은 (세종대왕에게) 이성경의 위화로 회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이 부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솔직히 새누리 의원들이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을 부결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서

/tuim@kwangju.co.kr

/사진=매일신문 박희만 기자

스럽게 생각한다. 올해 64주년인데, 64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어수선한 상태에서 제한국회가 열리고 제헌 의원들이 경험에 없음에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현법을 만들었다는 데 경의를 느낀다. 이 나라가 지금 이 정도 번영과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제헌 의원 192명의 덕분이다. 새삼 64주년 제헌절을 맞아 그분들의 제헌 정신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

-국회 개원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동의한다. 당초 6월 5일 개원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아 현

총일과 6·25 행사 등에도 차질을 빚었다. 의장, 부의장 선출하고 국회 개원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자동 개원 부분을 넣지 못했다. 제 임기 중이라도 국회법을 손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5·18 국립묘지를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8년간 두 차례 낙선해 공적 신분이 아니어서 가지 못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되어 참배하려고 하니 유희석 등의 반발 기류가 있어 상황을 보고 있다. 현지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참배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다. 오는 27일 여수엑스포를 참관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하에 자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해달라고 했으나, 할 수 밖에 없다. 박탈 여지가 있다면 박탈하고, 자격심사에 문제가 있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자격심사위원회를 열면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여야 대표들도 또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겠나.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 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 번 불시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문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니, 여야도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자격심사에서 별 문제없이 가면 제명되지 않을 것이고, 강경 분위기가 형성되면 또 달라질 것이다.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이 부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솔직히 새누리 의원들이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을 부결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서

/tuim@kwangju.co.kr

/사진=매일신문 박희만 기자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오늘 개막

백남준 등 20개국 300여명 회화·미디어·사진 작품 다채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서 열린다.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은 지난 2006년 1회를 시작으로 격년제로 이루어지는 여수지역 최대의 미술행사

로 올해는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기념하는 전시회로 마련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세계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을 비롯한 미국의 빌 베일리, 영국의 마이클 휘틀 등 20개국 300여명 작가의 회화, 미디어,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그 밖의 참여작은 작품 등을 이용한 거리 배너전, 시민참여 프로그램

께 열려 색다른 현대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의 예술감독에는 문인희씨가 선정됐다. 문 감독은 뉴욕 화이트박스(White Box)전, 서울 KBS 80주년 특별기념전, 뉴욕 하몬드 미술관 50주년 기념전에서 진행된 백남준 개인전 등 다수의 기획전을 감독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오늘의 여수엑스포

평소 보기 힘든 공연도 박람회장에 오면 매일 관람할 수 있다.

오늘은 웃음과 놀라움을 선사하는 '액션 드로잉 여수'가 초대됐다.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입체드로잉, 200개의 큐브를 단숨에 맞춰 그림을 그리는 큐브 아트, 거칠 없는 화려한 색채드로잉 액션페인팅 등 화려한 무대가 마련된다.

△액션 드로잉 여수 (천막장·오후 4시)

△국가의 날·보리타니 (엑스포홀·오후 10시)

△더굿(천막장·낮 12시)

△함평문화의 날 (전통미당·오후 2시)

△비단의 소녀 (오후 7기30분·해상무대)

△팝페스티벌·애프엑스 (특설무대·오후 8시)

△DJ댄스 쇼 (특설무대·밤 9시30분)

△어제의 관람객수=8만9775명(16일 오후 6시 현재)

△누적관람객수= 386만1168명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온선컨설팅부, 배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근린주택

▷서구 농성동 역세권 6층 의료시설 대지290평 건평

930평 김정기22억 최저가11억

▷서구 생활동 2층주거지역 4층 상가주택 대지70평 건

평175평 김정기15억4천 최저가13억7천

▷광산구 월계동 2층주거지역 3층 상가주택 대지85평

건평157평 김정기4억7천 최저가3억3천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북구 문등동 2층주거지역 3층 다가구 대지58평 건평

98평 김정기2억7천 최저가1억7천

▷남구 진월동 2층주거지역 3층 단독주택 대지43평 건

평70평 김정기1억3천 최저가1억2천

공장 / 창고부지 / 대지

▷북구 양산동 공업지역 대지1800평 건평1530평

김정기29억4천 최저가15억